시론

어리석은 망동이 큰 화를 부를수 있다

무분별과 어리석음은 동전의 량면과 같다.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이 벌리고있는 무분별한 무장장비개발과 전력화책동을 두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2024년까지 륙해공군 및 해병대의 기관총을 갱신하겠다는것이나 신형정찰기를 자체개발하겠다는것 등은 그에 대한 실증일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전쟁책동이고 제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망동이 아닐수 없다.

신형정찰기의 자체개발경우 공화국의 주요통신,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수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시작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따른 감시체계구축을 적극화하겠다고도 한다.

앞에서 떠드는 《평화》, 《대화》와 같은 미사려구와 뒤에서 놀아대는 전쟁책동이 공존할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진행, 《국방개혁 2.0》의 추진, 신형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의 설치 등 년말까지 이어지는 군부호전세력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서 《평화》, 《대화》는 한갓 말장난에 불과하며 전쟁대결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여전히 동족을 《위협》의 대상, 억제해야 할 상대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것도 명백하다.

년말까지 남조선에서는 전쟁화약내가 가셔지지 않는다.

다름아닌 동족을 향한, 동족을 상대로 한 군부호전세력의 전쟁광기로 인한 화약내이다.

외세에 추종하여 온 한해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 군비확장과 무장장비현대화에 매달려온것만으로도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내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평화를 지향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의지이고 시대적흐름인데 한사코 《평화의 적》으로 남아있겠다는것인가.

어리석은 망동은 더 큰 화를 부를수 있다.

정 필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고 평등사회에로의 대전환을 이루자!》

남조선에서 민주로총과 정의당, 진보당을 비롯한 5개의 진보정당들이 후보단일화 방식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민주로총과 진보정당들이 련합회의를 열고 《110만 로동자들의 힘으로 온갖 불평등을 타파하자!》, 《로동문제와 민생정책이 완전히 실종된 대선에서 로동자정치세력화는 필수적이다.》,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고 평등사회에로의 대전환을 이루자!》는 구호를 제시하였으며 다음기 《대통령》 선거에 단일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릴것이라고 전하였다.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는 울산에서 여러 진보정당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후보 진보단일화를 촉구한 소식을 전하였다.

회견에서 각 정당들은 《20대 대선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선거가 아니라 정권심판과 정권지키기가 격돌하는 저급한 선거가 되고있다. 국민들은 대선이 〈누가 더 나쁜 놈인지 경쟁하는 선거다.〉라고 이야기한다. 〈COVID-19〉 위기, 민생위기상황에서 치뤄지는 대선이 이렇게 흘러가는것자체가 비극이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거대 량당의 두 후보들은 모두 철학과 정책보다 표의 유불리만 따져서 갈지자행보를 하고있다. 기득권을 두고 다투는 대선판, 권력투쟁의 장에 불과한 대선판을 그대로 방치할수 없다. 성실하게 일하는 로동자, 자영업자, 농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대선 이대로 두고볼수 없다. 불평등사회를 뒤집을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모든 정치세력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대선판을 뒤집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언론 《뉴시스》도 민주로총이 2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래년 1월 15일 대규모민중총궐기를 개최하기로 한것과 래년 1월 진보진영의 《대통령》선거후보를 단일화하고 선출된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한 방침과 립장을 재확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민주로총과 진보5당이 단일후보를 내세우면 여야량당의 대선판을 크게 흔들어놓을수 있다.》, 《여야당의 지지층의 분렬도 촉진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전 명 진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9일 남조선언론들인 《민중의 소리》와 《경향신문》은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로동자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김용균의 사망 3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론들은 김용균의 사망을 계기로 비정규직로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였고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웨쳤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어 로동자들의 투쟁에 바빠맞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래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전체 산업재해사망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50명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2024년까지 유예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로동자가 일하다가 죽을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안전하지 못한 로동구조를 뜯어고치는것이 살아남은자들의 몫이다, 일하다가 죽지 않으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민생악화의 원인은

온 한해 남조선인민들은 악성전염병과 민생고로 하여 고통속에 살아왔다.

남조선언론들은 이해를 총화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여오르고 실업자는 110만 8 000여명, 실업률은 3.9%로서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이후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가계부채비률은 사상 처음 100.6%에 이르고 소비자물가는 9년 11개월만에 최대상승률을 기록하였다고 전하였다.

하다면 국도의 민생악화가 과연 악성전염병사태에만 기인된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는가.

아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를 외면하다 싶이 한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이 첫째가는 원인일것이다.

대기업들도 헤여나기 힘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자살직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야합한 합동군사연습, 첨단무장장비구입과 개발에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탕진한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수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악화된 생활난을 이기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는 때에 당국이 혈세를 탕진하여 개발한 신형무기들을 공개하고 자랑스럽게 광고하는것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집권치적》에만 골몰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무기고에 무기가 쌓여갈수록 주민들의 경제형편이 더 악화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국방비를 조절하여 《죽음의 계곡》을 건느고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다리》부터 놓아주어야 한다고 들이대고있다.

권력쟁탈에만 혈안이 된 정계의 민생외면도 다른 하나의 원인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남조선정국은 년초부터 정쟁으로 달아올라있다.

자기를 지지해달라는 인물마다 민생에 대해 말은 많아도 해결책은 당국에, 《공약》에 말기는 식이다.

현재 남조선에서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정치무관심층이 늘어만 가는것은 썩은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규탄이라고 할수 있다.

2021년을 특징짓는 4자성어에 모두가 다 지쳤다는 《인곤마폅》이나 권력을 위해서는 남을 누르고 올라서야 한다는 《니전투구》가 선정된것은 그에 대한 적라라한 토로이다.

가파른 민생고에 삶은 고달프고 생명은 죽어가는데 앞을 밝혀줄 빛은 없고 구원의 손길도 없으니 저물어가는 이 한해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더욱 암담할 래일을 예고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광 혁

응당한 결과, 정당한 심판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청년층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있어 《국민의힘》이 골머리를 앓고있다고 한다.

얼마전에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20, 30대 청년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률은 1주일 동안에 무려 10%이상 하락하였다고 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인정하기 괴로운 현실이겠지만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왜 그렇게 되였는가.

윤석열이 지금껏 표방해온 《공정》과 《정의》가 허상에 불과하다는것이 드러난데 있다.

윤석열이 《청년인재》의 명목으로 선거대책위원회에 끌어들이려고 한자들을 보면 지난 시기 《리승만과 박정희는 신이 보낸 구원자》, 《5.18민주화운동은 폭동》 등 독재찬양과 녀성비하의 망발을 늘어놓은자들이였다.

선거대책위원회의 각 부서들에 청년보좌관들을 공개채용하겠다고 하고서도 제 심복들만 박아넣은것으로 하여 윤석열의 《청년인재영입》은 한갓 기만에 불과하다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였다.

거기에다 윤석열의 처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많은 남자들과 치정관계를 맺었다지, 주가조작, 뢰물수수, 경력위조의혹까지 련발하지, 그런데도 윤석열은 《사과》를 한다는게 남조선인민들말대로 목에 석고붕대를 감았는지 뻣뻣하게 놀아댔다지, 그런것으로 하여 청년들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윤석열의 가면이 벗어졌다,

윤석열은 자기 처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윽윽대고있다는것이다.

하기는 자기 당대표를 《어린이》취급하며 따돌리고 무시하는 윤석열이고보면 청년들에 대한 그의 관점이 어떻다는것을 잘 알수 있는것이다.

보수야당내에서도 《잘하겠다는 말만 했지 당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책이나 공약을 단 하나라도 제시한적 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울려나온다고 한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언론들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후보가 정작 가족의 비리의혹에 휩싸이면서 청년지지층이 떨어져나갔다.》고 평하였다.

청년층의 분노와 배척은 허바닥에만 《청년》을 올렸지 진정으로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조차 먹지 않았던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응당한 결과이다.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지표와 권력에 환장한 시정배들의 행태에 대한 정당한 심판인것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전대미문의 《범죄혐의자선거》

《이번 대선은 〈최선의 후보〉가 아니라 〈차악의 후보〉를 뽑는 선거》, 이것은 《대선》에 나선 여야당후보들의 도덕성, 능력, 자질 등을 분석한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의 평이다.

최근 련이어 터져나오는 여야당 《대선》후보들의 가족부정부패의혹은 그 말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는 아들의 상습적인 불법도박행위와 성매매의혹까지 터져나온데다 어느 한 시민단체가 《대선》후보가 형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록음화일을 공개한것으로 하여 골머리를 앓고있다고 한다.

리재명이 아들문제에 대해 급기야 사과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형수를 욕설한 록음화일공개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그에 대한 민심의 반응, 특히 녀성, 청년층의 반감을 가라앉히기가 조련치 않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은 더욱 난감한 처지라고 한다.

본인의 《국회》의원선거개입의혹도 아직 미결건이고 장모가 투기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받은것만으로도 윤석열의 《공정》과 《정의》, 《법치》는 빛바랜 너울이 되였다고 할수 있다.

설상가상이라고 처의 경력위조의혹이 점점 그 형체가 드러나고있는것으로 하여 요즘 윤석열은 식혜먹은 고양이 상통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윤석열의 처가 이전에 유흥업소에서 많은 남자들과 치정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실증하는 증인이 등장했고 경력위조건도 15년동안 10건나마 된다는 사실자료들도 발견되였다.

더우기 그 의혹에 대해 해명해달라는 언론들의 요구에 윤석열의 처는 《믿거나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돈보이려고 한 욕심》이라고 거리낌없이 내뱉아 청년들의 격분을 더욱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민심의 평대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짜삶〉을 살아온》 처에 대해 《진실한 사람》이라고 두둔했다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마지못해 《사과》하는 놀음을 벌렸다는것이다.

다른 정당들에서 《윤석열 사퇴하라.》는 요구가 높아가고 보수세력내에서도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급해난 《국민의힘》것들은 여당의 《정치공작설》, 《사전각본설》, 《기획공세》, 검찰고발 등 상투적인 수법을 발동하여 여론과 시선을 돌려보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여야당의 《대선》후보들 자체도 그러한데 가족들의 범죄혐의까지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대선》이 《전대미문의 범죄혐의자선거》, 《력대 최악의 부정부패선거》, 《콩가루선거》로 되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정치는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주는것이라고 하였다.

악성전염병과 민생고에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이 사이비정객들은 권력쟁탈에만 혈안이 되여 덕지덕지 앉은 부패딱지들을 가리워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과 꿈을 기대하겠는가.

남조선에서 정치적무관심층이 날로 늘어만 가는것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본사기자 류 현 철

《반창고붕합 선대위》의 이모저모

남조선인심이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가리켜 《반창고 불인 선대위》라고 조소한다고 한다.

내부갈등도 문제인데다 어중이떠중이들을 긁어모아 얼렁뚱땅 만든 선대위이기때문이다.

오합지졸이 따로 없다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는 3부류로 나뉘여져있다고 한다.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그룹, 《정치철새》 김한길의 새시대위원회그룹, 윤석열측근으로 자처하는 《파리떼》 그룹이다.

500명이나 되는 선대위를 김종인이 총괄한다고는 하지만 이 세 그룹이 리해관계에 따라 저마끔 놀아나고 서로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언론들은 윤석열패들이 너무 날친다고 평하고있다.

실제로 윤석열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도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병준만 끼고돌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마저도 무시한다는 설이 나돈다.

윤석열패와 새시대위원회그룹과의 관계도 편안치 않다.

얼마전 새시대위원회에 녀성정치인을 한명 인입했는데 윤석열패의 일부는 그가 녀성권익옹호자라는것을 마뜩지 않게 여기면서 《몇번 쓰다 버리면 된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자들은 그에 반발해 탈당까지 하겠다고 으르고있다.

《잡탕밥》, 윤석열과 앙숙인 홍준표는 선대위를 이렇게 단마디로 평가했다.

오죽하면 《선거의 달인》으로 자처하는 김종인도 선대위가 《전혀 효률이 나지 않는 비대한 조직》이라고 씁쓸해하고 초선의원들은 선대위를 가리켜 《물건을 마구 쑤셔넣은 마대자루같다.》고 개탄하였겠는가.

여전한 《리준석패싱(무시)》

끝내는 터지고말았다.

어느 누구의 말대로 당대표 리준석과 윤석열심복인 공보단장사이에 《쾅》 하고 충돌이 일어났던것이다.

얼마전 비공개 선대위회의에서 당대표 리준석이 공보단장에게 《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을 보도한 언론들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자 공보단장이라는 녀성은 《내가 왜 그쪽 명령을 들어야 하느냐. 난 후보말만 듣는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발끈한 리준석은 책상을 내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퇴장해버렸고 이후 공보단장이 《사과》비슷한 말을 했음에도 《사과같지도 않은…》 하고 무시해버렸다.

가관은 윤석열이 그 소식을 듣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웃어버렸다던지.

다음날로 리준석은 《중대결심》으로 이내 상임위원장자리를 내놓고 선대위에서까지 탈퇴하였다고 한다.

단순히 리준석과 공보단장사이의 알륵과 마찰이 아니라 윤석열패의 《리준석패싱》연장이고 그 결과였던것이다.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은 법

《국민의힘》선대위의 내부갈등의 폭발은 남조선민심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끼리끼리의 패싸움이 잦을날 없는 《국민의힘》선대위에 대한 보수내부의 반응을 몇가지 보기로 한다.

《당대표의 웅졸한 자기정치가 선대위를 얼마나 리기적으로 만들고있는지 알아야 한다.》(윤석열심복 장제원)

《리준석패싱이라는 말이 다시 나왔다. 윤후보의 정치력부재를 보여주는 상황이 잇달으니 〈윤후보는 출마한게 아니라 출마당했다.〉는 말이 나도는것.》(보수정치권 관계자)

《〈국민의힘〉은 말그대로 중구난방이고 능력을 의심케 한다.》(다른 정치권 관계자)

《결국 밥그릇싸움으로 보일뿐.》(《국민의힘》의원)

《어차피 자질이 안되는 사람들》, 《대표도 사퇴하고 최고위원도 사퇴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늙으나젊으나 철딱서니들이 없다.》(보수언론인)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다고 했다.

싸움으로 망해가고 민심에 대한 반역으로 망해가는것은 《국민의힘》의 어쩔수 없는 운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황 금 숙

어리석고 무분별한 망발

얼마전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최전방을 싸다니며 《안보》를 고취했다고 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백골부대》의 사병들앞에서 동족을 《적》이라고 뇌까린것이다.

보수세력의 너저분한 지지표를 얻어보려고 그 따위 수작을 했다면 가긍하기 짝이 없는 구걸이고 본심이라면 너무도 푼수없는 망발이 아닐수 없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햇내기가 산신제밥에 청메뚜기 날아들듯 남조선정치판에 끼여든것자체도 가소로운데 감히 누구를 향해 혀바닥을 나불대는가.

군대물도 먹지 못한 한갓 정치얼간이인 윤석열이 감히 누구와 맞서보겠다고 설치고있는것은 하루강아지의 주제넘는 객기로만 볼수 없다.

지난 6월에도 동족을 《주적》이라고 떠벌이고 여러 차례나 공화국을 향해 험담을 늘어놓았다고 하는데 결코 보수의 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이나 대결앙심을 품고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결딴낸 이전 보수당국자들도 처음부터 동족을 향해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흉심그대로 동족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를 망쳐놓은탓에 끝내는 남조선민심으로부터

《적폐중의 적폐는 분단적폐》라는 락인을 받았으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다.

그 전철을 밟으려는 윤석열의 《적》발언은 폐기처분된 보수의 동족대결, 전쟁대결적인 《대북정책》을 다시 꺼내들기 위한 서론이고 북남관계를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던 과거에로 되돌리려는 어리석고 무분별한 망발인것이다.

정치검찰노릇이나 하던 자가 간덩이가 부어 이제는 파쇼독재의 교형리로 둔갑하겠다고, 지어 동족을 상대로 하는 전쟁대결광이 되겠다고 날뛰고 《국민의힘》것들은 그런 자를 내세우며 부추기고 있으니 같고같은자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개가 달을 보고 짖는것은 무서워서이지만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짖어대는 미친개는 시도때도 없이 으르렁대며 이발을 드러내기마련이다.

그런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일가는 약인것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

《은둔형외토리》

한정된 공간에서 고립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은둔형외토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은둔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그들은 누구이며 왜 은둔하게 됐는지, 방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진바가 거의 없다. 《정부》차원의 실태조사를 한적이 없고 이를 구체적으로 파고든 언론보도도 많지 않았다. 일체의 접촉과 소통을 거부하며 방안에 은둔중인 청년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기때문이다.

생애전반에 걸친 경쟁과 성취의 압력앞에서 어떤 청년들은 《사라져버리는것》을 대안으로 선택한다. 끊임없는 좌절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우울감과 무력감이 삶에서 리탈하고싶은 마음으로 나타난다는것이다.

이처럼 은둔생활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은둔청년들은 사회에 대한 공포를 갖는다. 그 공포는 《은둔형외토리》들이 모인 인터네트카페글에서도 발견할수 있다.

《가정이 해체됐다.》,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취업을 못해 좌절됐다.》,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했다.》, 《해고당하기도 했다.》, 《학교폭력을 자주 경험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올라온 글 400여건을 분석했다. 《사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거나 《사회공포증을 느낀다.》 등 사회전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경우가 71.2%였다.

《은둔형외토리》는 모든 년령대에서 나타나지만 청년세대의 은둔은 특히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활동이 한창일 나이에 고립해 지내는 청년이 많다면 그들을 은둔시킨 사회 역시 병들었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남조선잡지 《한겨레21》 12월 6일호에서 전재)